

보도자료



배포일	2015. 3. 26.(목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
담당부서	(재)서울대발전기금 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제 목: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,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 총 20억원 쾌척

-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(약학과 1960년 졸업)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시설확충기금 1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.
- 진양제약은 지난 2014년 5월에도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기금 10억원을 기부한 바 있어, 이번 기부를 통해 총 20억원을 쾌척한 것이다.
- 지난 2015년 3월 25일(수) 서울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과 최윤환 진양제약 회장을 비롯해 이봉진 약학대학 학장, 최재준 진양제약 사장 등 주요 학내 인사와 진양제약 임원들이 참석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“진양제약을 우수한 제약 회사로 육성하신 최 회장님은 모교 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활동하시며 지원하고 계신다”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최윤환 회장은 “모교 약대가 신약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하게 됐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- 1971년 진양약품공업사를 창업한 최윤환 회장은 연구자 겸 경영인으로서 우수한 약품 개발을 통해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. 또한 약대 동창회 감사와 총동창회 종신이사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.
- 서울대학교는 최윤환 회장의 뜻에 따라 조성된 20억원의 기금을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의 최첨단 시설 지원 및 신약개발 연구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.
- 사진설명: 좌로부터 최윤환 회장, 성낙인 총장, 최재준 사장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